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6. 지난 이레 동안에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청과 가족들이 모여 주님의 높으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을 등진 채 걷는 길은 어둡고 냉랭했습니다. 이웃들은 경쟁의 대상이거나,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 돌아선 후 우리는 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참 사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옛 사람의 습기(習氣)를 말끔히 벗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평화와 복음적인 삶 가운데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온유의 무기를 들고 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어둔 세상에 밝혀진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나라의 예표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9:21	인도자
♠ 교 독 문	3. 시편 3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이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지호 선생 II. 윤정덕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26.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3:1-11	인도자
	II. 요1:35-42	하현철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수건과 대야	김기석 목사
	II. 영혼의 장인(匠人)	김기석 목사
거듭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42. 나의 놀라운 꿈 다함께
 헌금봉헌 연주 : 이일주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의 온갖 거친 것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을 일깨우는 영원의 전령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깊은 겸손과 절제된 삶과 참된 지식을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쓰디쓴 고난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5년 제1회 신앙강좌	신명기 강해(33)
화해를 위한 희생(송강호 목사)	기도 : 이춘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고운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백혜숙 권사

2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준호 김 극 김필순 장혜숙 안경숙
	헌금위원	강인식 박창운 김용진 곽혜자 김명순 최숙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인간스럽게 사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가 사람답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여지껏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여태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외로울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기도는 그것만으로 줄곧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사람을 낚으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사람이 없었다. 3년 동안 다니시며 문둥이도 낫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 주었다. 그런데도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리스도는 사람을 낚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사양치 않으셨다. 그분이 죽은 후 2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땅 위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추측하기 어렵다.

중국의 노신(魯迅)이 쓴 『광인 일기』란 소설에 보면 “아직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어린이가 있을지 모른다. 아이들을 구하라...”고 씩어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향해 세 번이나 거듭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까?”

예수가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죽음에서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그토록 간곡히 사랑을 구했을까? 그분은 완전히 신으로 돌아간 것인데 어째서 그토록 고독하셨던가? 한낱 보잘 것 없는 무식한 어부에게 과연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는 못했다. 내가 필요할 때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린다.

그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지 사랑한 건 아니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닌 것도 나와 흡사한 생각에서였을 게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랑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땀은 손으로 모든 영광을 버리고 홀연히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는 인간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다. 비록 비천한 고기잡이 베드로 같은 인간에게도 한 사람으로서의 깨끗한 사랑의 피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의 참 뜻을 모른다. 사랑이 무엇지도 모른다. 지금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와 사랑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나의 신앙은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족하다. 사람을 낚아 그를 사랑하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 된다. 피와 피가 통하는 사랑, 그것만이 그리스도와 나와 사랑인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일본의 작가 미야자와 겐지가 쓴 <은하 철도의 밤>이란 동화를 읽었다. 주인공 조반니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고독한 소년인데 같은 반 친구 캄파네루라를 사랑하고 있다. 캄파네루라는 헷세가 쓴 데미안과 거의 비슷한 소년이다. 어찌면 작가인 겐지는 이 캄파네루라를 그가 신앙했던 부처의 모습으로 그렸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예수의 모습을 이 소년을 통해 표현해 보려 했는지도 모른다.

조반니와 캄파네루라는 꿈나라에서, 하늘을 나는 기차를 함께 탄다. 캄파네루라와 마주 앉은 조반니는 더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캄파네루라, 다시 우리 둘만이 함께 했구나,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같이 가 줘...”

조반니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캄파네루라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물에 빠진 소녀 자네리를 건져 준 다음, 자신은 물 속에 잠긴 채 죽어 버린 것이다.

결국 조반니는 캄파네루라를 현세에서 잃고 말지만, 그가 죽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알고 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쓰라림이 뒤따른다는 것을 옛 성현들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너무 어려워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특히 나와 같은 인간은 생전에 아무도 사랑해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권정생의 수기 중에서)

육체를 통하여 영혼에 도달하라



프란시스를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은 한겨울밤 발가벗은 채 걸어가는 스승을 보았다.

“이렇게 추운데 발가벗고 어디로 가십니까?”

놀란 제자가 물었다.

“지금 이 순간도 추워서 떠는 형제 자매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덮어줄 담요가 없으니 추위라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신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돌을 들어도 그 아래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우물을 보아도 그 안에서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시선이 머무는 모든 유층의 등에도 날개가 돋아나려는 꼭 그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동굴 안에도 계시고, 한 줌 흙 속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지켜보시며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엇을 닮았을까? 인간의 영혼은 대체 무엇을 닮았을까? 알로 가득한 새 둥지 같은 것일까?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쳐다보는 메마른 대지 같은 것일까? 인간의 영혼이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오’하는 신음 소리 같은 것이다.(니코스 카잔차키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박창운 허정윤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윤주원 최윤선 김정길 최숙화 이인웅 최종원 정완수 김재광 배삼순
 윤수진 김혜권 김중훈 안경숙 전영순 김선호 김준호 곽혜자 박영숙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오현정 조항범 정진영 허광식 황원순 유창호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김성자 박정석 고숙이 박찬정 이봉배 권혁순 박해경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김정섭 이봉옥 이건화 정복순 김희은 강정우 이정화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중철 김중문

구도헌금: 김용길 최영혜 제3여선교회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최 희 영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박 흥 업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교 회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구 성 실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흥 숙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2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금년도 제1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주제는 '화해를 위한 희생'이고 강사는 평화운동단체인 <개척자들>(WCF)의 송강호 목사입니다.
3. **장로 은퇴 및 취임** : 제25회 중구용산 지방회에서 윤정덕·강인식 장로님이 은퇴하셨고, 방문성·한상익 장로님이 취임하셨습니다.
4. **연합속회** : 3월 4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나사렛 식사준비 - 빌립보
5. **봉사**: 종묘 급식봉사가 3월 2일(수) 오전 11시15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4일(금) 오전 12시 30분에 실시됩니다.
6. **담임목사** : 3월 2일과 3일에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성 집회를 인도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목요성서연구반** : 3월 10일부터 복음서를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5명 한정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다른 요일에도 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8. **동호회** : 3월 동호회는 종려주일(20일)을 피하여 13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고 싶은 동호회에 이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9. **신앙실천** : 3.1운동 86주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3월	영접위원 : 한완식 박창운 고사일 유영남 박홍재 이영란
	헌금위원 : 김철수 김정길 김인걸 조병주 배삼순 장혜숙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 방문성 한상익

* 헌화 : 김인걸 문영혜 (결혼기념일) * 식사 : 김순복 권사 (생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